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원교회)
이필레 강준식/김정연b 김광호 김기안/하세련김기택/배속자 김외자 김종선/박영숙 김종진/한안나 김준구/이소은 김진희 김창길 김현구 김현욱 박부웅/최귀남 박정숙 박혜진 방복순 방석태/차옥자 김진화/최봉순 윤 숙 윤영준/박진숙 윤조훈 이복현 이육남 이종문/김명중 이찬호 이창규/곽정순 이태일/송백현 이한철/박희영 이향교 이형욱 임형문/박금옥 장윤주/김현진 전병구/이인숙 정기성/심순옥 정은찬 주경덕/이경자 지옥본 채희춘/황영옥 천세혁/염영분 최선미 최성현/윤정자 최정희 추재호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원교회)
이필레 강준식 김기안 김명중/이종문 김병율/이영숙 김외자 김준구/이소은 김현욱 김형국 박춘자 방복순 방석태/차옥자 윤 숙 윤승한/민옥희 이명원 이복현 이소은 이찬호 이태일 이한철 이형욱 임형문 전병구/이인숙 정경순 정기성/심순옥 최기훈/정계숙 최정희 홍유정

♠ **감사헌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원교회)
이진우 이필레 김경태 김병율/이영숙 김연이 김외자 김중익 김현구/서재희 김혜미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정숙 박춘자 방복순 서종석 염영분 이강우 이미자 이필숙 전병구/이인숙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정판순 조옥자 채영업 최기훈/정계숙 최봉순 최성현 하세련 홍유정 황영옥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김영숙 김미희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준화 김혜란 민옥희 박민서 박순자 박희영 방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육남 이인숙 장하람 전병구 정옥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무 명 양일석 이노을 정승현

♠ 월정헌금

김묘순 박춘자 전갑희 홍유정

주간 성경연구

44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역대하 7장 11절 ~ 22절		
월요일	역대하 8장 1절 ~ 16절	목요일	역대하 10장 1절 ~ 11절
화요일	역대하 8장 17절 ~ 9장 12절	금요일	역대하 10장 12절 ~ 19절
수요일	역대하 9장 13절 ~ 31절	토요일	역대하 11장 1절 ~ 12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석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전도사	이필레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앤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강민주 김미희 공희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채종범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오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8. 10. 28. 주일 예배 설교

나눔 3장 1~11절	구경거리로 전락한 니느웨	설교자 이진우 목사
-------------	---------------	------------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앗수르도 그랬습니다. 잘나가던 나라, 가장 강한 나라 앗수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히 행한 결과 멸망이 홀연히 앗수르에 임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을 앗수르를 벌하시며 치셨습니까? 과연 앗수르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 미혹하던 미모의 음녀
 - 나훔 선지자는 앗수르의 행위를 마술과 기생의 음행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한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은 결국 속임수입니다. 앗수르는 주변 나라를 하나둘씩 점령하고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헛된 생각을 가득 심었습니다. 앗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몽둥이요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인데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 버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앗수르만 의지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앗수르에 점령된 나라들은 앗수르가 최고이고,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이 속임수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마술사에게 속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가 앗수르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 또한 앗수르는 점령한 나라들에 그들의 우상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기생의 음행과도 같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도 앗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다는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앗수르는 미모의 음녀처럼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쾌락과 음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앗수르는 마술사처럼 그리고 기생처럼 선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앗수르는 속이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속았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모두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이는 자인 앗수르의 몰락은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 오늘 이 시대 또한 믿는 자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뉴스와 정보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 더욱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구경거리가 된 니느웨
 - 다른 나라를 미혹하던 앗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민을 망하게 한 앗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확실히 하는 채찍 소리, 원형하는 병거 바퀴 소리가 들리고,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으로 무장한 바벨론 군사들이 무수한 시체를 남기고 온 앗수르와 수도 니느웨를 초토화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확실히 하는 채찍 소리, 원형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야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 과정에서 마술과 미모는 무용합니다. 마술에는 능력이 없었고, 미모가 뛰어난 음녀는 벌거벗김을 당한 채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여인들과는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여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먼저 믿음의 여인들은 지혜로워서 마지막을 잘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등을 밝히 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로 준비하는 자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얻습니다. 모양 여인이었던 롯은 믿음을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여인 에스더는 황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반면에 앗수르는 처음에는 화려하고 창대해 보였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몰락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조롱을 받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요, 현숙한 여인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한간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 더 나아가 종교계까지 가짜뉴스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짜 뉴스에 속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것들은 속여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속이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분별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세상의 모든 가짜에 미혹됩니다. 이는 영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이라야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있는 것입니다.

SINCE 1975

No. 44 - 44

2018. 11. 0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학습세례입교식

[1부] 오전 7시		사회: 윤 영 준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로템나루)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_____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_____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_____	찬송가 272[통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 갈 이
(Praise)		
통 성 기 도 _____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_____		{1부} 김 경 엽 집 사
(Prayer)		{3부} 윤 영 준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나훔 3장 12~19절구약.1301]		성 미 영 권 사
(Scripture)		
	[2부] 요나 2장 1~10절구약.1288]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홍지열]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1,3부] 동정 받지 못하는 멸망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어떻게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학습세레입교

헌 금 봉 헌 —————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 다 같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 이 진 우 복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_____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90(통444)장 다 같 이
(Praise) 예수가 거느리시니

축도 이진우 목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최 성 현 장 로
목	도	시 온 찬 양 대
성	시	시편 44편 26절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377(통451)장
기	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성 경 봉 독	이사야 32장 1~8절	[구약p.1003]
찬	양	시 온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570(통453)장
축	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박희영권사] 이 경 자 권 사

성 경 봉 독 — 베드로전서 3장 1~4절(신약p.52) — 인 도 자
설 교 — 생활 전도를 해 보아요 —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루	유초등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고등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루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년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망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도특강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2018년도 하반기 성례식]
오늘(4일) 3부 예배 시 “2018년 하반기 학습세례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11일) 1, 2, 3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배병·배찬 위원: ■ 1부: 윤준훈, 임만순 장로 ■ 2부: 최성현 장로 ■ 3부: 시무장으로 전원
- [여전도회 연합 야외예배]
지난 30일에 있었던 여전도회 연합 야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전도회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전도회에 참여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여전도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11/9) 금요기도회는 “요한남전도회” 주관으로 합니다.
- [2018년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11월 18일(주일)까지 “금식일을 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요엘1:14)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를 꼭 지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속지참조)
- [주일학교 및 행정, 남·녀전도회 회계감사]
주일학교 및 행정, 남·녀전도회 회계감사가 11월 11일(주일)부터 있습니다. 주일학교, 각부서, 전도회 회계는 감사받을 회계 자료를 잘 정리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위원회 모임]
2019년도를 준비하며 교구위원회 모임을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1시 식당에서 가집니다. 각 초원장, 목자, 부목자, 심방담당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여전도회월례회(3부에배후/본당)

◎ 환영합니다.

- 18-24 권세안 집사(고척10/바울남전도회)
- 18-25 이옥희 집사(고척10/루디아여전도회)

◎ 교우소식

- 故 송창화 집사(맹관순 집사 장남 소망3/고척7) 2일(토) 소천, 4일 장례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이송이 전도사	김춘화 권사	최봉순/김춘화/정옥순 권사	오영순 권사	사랑2 개봉3 개봉4	한나 여전도회
다음주	김준주 성도	김우근 집사	이한웅 집사, 김소숙 권사/ 김재인 집사, 이강우 권사	이영숙 권사	총성1 소사 총성2 특별	드보라 여전도회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11월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44주(4일)	김경업 집사	윤영준 장로	성미영 권사	최석현 장로	유승용 집사	이경자 권사
45주(11일)	최상걸 집사	윤조훈 장로	곽경순 권사	임만순 장로	김경업 집사	박희영 권사
46주(18일)	유현호 집사	강영성 장로	박복순 권사	윤영준 장로	최상걸 집사	이오순 권사
47주(25일)	박종삼 집사	김병을 장로	윤 숙 권사	방석대 장로	윤조훈 장로	백경자 권사
예배안내	윤영준 윤조훈 강영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